

MBTI의 태도척도와 MMPI si 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 재 갑[†]

서울심리상담소

최 정 윤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본 연구는 대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MBTI에 의한 심리유형과 MMPI의 여러 척도들, 특히 MBTI의 E-I 척도와, MMPI의 si척도에 나타난 심리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Jung의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476명은 MBTI의 E-I(외향-내향) 차원과 MMPI의 si척도에 의해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은, (1)집단 1= MBTI에서 I 이면서 si>50인 집단 (2)집단 2= MBTI에서 E이면서 si<50인 집단 (3)집단 3= MBTI에서 I 이면서 si<50인 집단 (4)집단 4=MBTI에서 E이면서 si>50인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MBTI 연속점수와 MMPI 임상 및 특수척도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이어서 이들 4개 집단에 대해 MMPI의 특수척도인 불안척도 및 자아강도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변량분석과 post hoc comparison을 하였다. 연구 결과 MBTI E-I 척도와 불안척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4집단에 대한 변량분석과 다중비교 결과 집단 1,4가 높은 불안과 낮은 자아강도의 동질 집단으로 묶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다. 1. 내향적인 젊은이가 모두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으며, 내향적이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젊은이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집단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2. 외향적인 젊은이가 모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내향보이는 외향형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Jung은 1920년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그의 여러 논문들을 집대성하여 출간하였다. 그는 의식의 태도를 내향과 외향, 정신 기능을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대립적이라고 했다. 태도는 정신 에너지의 방향을 말하며, 외향형에서는 객관적인 표상으로 정신 에너지가 흐르고, 내향형에서는 주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재 갑 / 서울 동장구 상도2동 상도아파트 6동 105호 156-092 /

E-mail : carljung@hananet.net

적인 정신 구조와 정신 과정으로 흐른다(Martin, 1958: Jung, 1974, Hostie, 1975). 기능이란 “수행하고, 작동하고, 작용하는 어떤 것” (Hillman, 1975)이며, 의식이 경험의 방향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하나의 기능이 가장 발달하면, 그 대극은 가장 미분화되어 각각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된다고 한다(Jung, 1974).

Jung(1974)은 내향성-외향성은 서로 대극을 이룬다고 했고, Goodpaster(1984)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정상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다만 의식의 태도가 지나칠 때, 의식에 대립적인 무의식적 경향이 가져오는 신경증적 갈등만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Krapu(1981)는 혼란되고 부적절한 정서적 발달에 기인한 성격의 결함과 극단적인 외향, 내향성에 의한 장애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했다. 이는 극단적인 의식의 태도와 정신 병리 사이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한가지 설명은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무의식의 대립된 태도가 보상하며, 이것이 다양한 정신병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Jung(1974)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나치게 외향적인 태도는 또한 주관적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외향적인 태도의 위험성이다: 그는 대상들에 사로잡히며,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상실한다. 나의 견해로는 hysteria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전형적인 히스테리아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과장된 라포이다. 항상 남의 관심을 끌고 주변에 인상을 주려는 태도는 바로 히스테리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피암시성과 감정의 넘쳐 흐름인데, 이는 그를 환상으로 인도하여 ‘hysterical lie’로 비난받게 한다. 이들은 무의식의 보상적 작용을 경험하는데, 이런 보상 작용은 육체적 증상에 의해 정신 에너지를 내향화함으로써 과장된 외향성을 방해한다(p. 336~p.337)”

“극단적인 내향형의 경우 무의식의 외향적 태도가 과보상되어 외부세계에 대한 권력욕, 지배욕의 환상을 낳고 이 환상과 의식의 태도 사이의 갈등에서 점차 지치게 되므로 주로 나타나는 신경증은 신경쇠약

증(psychasthenia)이다(p.379).”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Delehanty(1977)는 의식과 대립되는 태도가 꿈의 요소를 이루어 정신에 균형을 주는가를 검증하였다. 125명에게 MBTI가 실시되었고, 한 사람당 8편의 꿈 내용이 분석되었다. 결과는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 외향적인 내용의 꿈을 꾸었다. Yohay(1982)는 융의 심리 유형과 자아 정체성, 무의식의 투사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사람들을 자신과 대립적인 태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Bachant(1972)는 감정이 많이 관여하는 상황이 오면 무의식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 했는데,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의식의 태도가 심리장애와 갖는 상호 관계를 검증한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특질만으로 정신병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인데, 개인의 내적 특질은 대인 관계 및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 사회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페르조나를 구축하려는 개인에게 특정한 태도를 전문화하라는 압력을 줄 수 있다(이부영, 1978). 예를 들면, McCauley와 Natter(1980)는 현대사회는 E(외향성), T(사고), J(판단) 인간을 원하며, 따라서 I(내향성), F(감정), P(인식) 인간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다.

의식의 태도가 사회적 맥락에서 갖는 또다른 함의는, 대인관계에서의 투사와 갈등이다. Billington(1981)의 연구에 의하면 MBTI E-I 차원에서 같은 couple들이 파트너에 대한 예측-상대가 couple관계에서 얼마나 만족도를 느낄까를 예측하는 것-에서 유의하게 보다 정확하였다. Jacobi(1973)에 의하면, 개인은 반대되는 유형을 만나던, 거의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 쉬운데, 이는 상대가 자기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발달시키지 못해으므로, 무의식에 열등한 형태로 남아서 투사되므로, 부부간, 부모 자식간, 심지어 사회적, 종교적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때의 과제는 무의식의 태도를 자신 가운데서 구별, 분화하는 것이다. Yohay(198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소외(ego-alience)를 경험하는 동안, 피험자들은 자신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혐오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식의 태도가 사회적 맥락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정신병리현상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설명하고 있다. Jacobi(1973)에 의하면, 극단적인 외향적 태도로 내향형과 끊임없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 눌러왔던 내향성이 갑자기 분출되면, 심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 전형적인 내향형으로 오해되며, 자신마저도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사람은 불안, 우울,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음울한 사고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Franz, 1975; Jung, 1974). 매우 내향적인 사람도 환경과의 마찰을 경험하면서, 미분화된 외향적 태도에 사로잡히면, 잘못 적응된 서투른 외향적 인간이 될 수 있다(Jacobi, 1973, Jung, 1974)고 했다. 이처럼 태도가 혼동된다면, 현실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쇠약하게 적응하는 신경증에 이를 수 있으며, 혼란이 지나쳐 태도의 융합이 일어난다면, 자아 발달이 어렵고 정신증에 이를 수 있다(Franz, 1975; Quenk, 1985; Jacobi, 1973). 이것이 환경과 태도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신병리의 예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은 이상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인관계,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는 이런 예들은 의식의 태도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포괄적 입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란 새로운 변수도 작용한다. Jung은 삶의 전반적인 청년기에 주어지는 자기 탐구는 자아 확립, 의무 성취,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Whitmont(1978)에 의하면 청년기의 정신병리란 대개 세계에서 확고한 적응을 하는데 실패했거나, 현실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Jacobi(1973)도 청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과제는 외부세계와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주어진 기능과 태도를 분화시키는 것이며, 청년이 외부세계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는 무의식의 대극의 태도는 직면하거나 분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Jung은 청년기에는 외향적 태도의 젊은이가 내향형의 젊

은이들 보다 유리하다고 보았지만, 중년기에는 외부 가치에 몰입하여 온 외향형들은 외부세계에서 성공한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Jacobi는 적응적이고 능력있는 40대가 갑자기 가정의 불화가 너무 크다고 느끼고, 자신의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이런 증상들은 미분화된 태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이를 분화시키라는 경고라고 하였다.

Whitmont(1978)에 의하면, 현대의 서양 문화에서 태도와 기능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는 많은 청년기 우울증이 문화적 태도 때문에 생기는데, 특히 introvert, feeling, intuition 타입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Rytting, Ware와 Hopkins(1992)는 이상적인 배우자상(ideal mates image)에는 유사성의 편파(similarity bias), 즉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이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특히 S-N 차원에서 그러하지만, E-I 차원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이상형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 편파(cultural bias)라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문화에서는 내향성을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런 경향이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문화적 조건속에서 Myers와 McCauly(1986)가 주장한 것처럼 부모가 현대사회의 이러한 선호를 아이에게 강요하여 열등한 태도를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성인이 되면 삶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Jacobi(1973)는 동양인은 의식의 태도와 무의식의 태도가 대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 김명식은(1992) 현재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전통적 가치관, 유교적 영향들은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감상적이고 외향적으로 보이기 쉬운 E, N, F, P 유형보다는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현실적이고 신중하고 사려있는 I, S, T, J유형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면, 우리나라의 외향적인 젊은이와 내향적인 젊은이는 삶의 성취에서 서양에 비해 비교적 동등한 조건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로 미루어 우리나라 청년들은 개인의 타고난 의식의 태도와 무의식에 미분화된 태도의 역

동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 사회적 맥락, 청년기의 발달 과업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능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태도에 대한 연구는 정신병리만이 아니라, 직업 만족도, 결혼만족도등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임상과 상담장면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청년기에 일반적으로 발달한 태도의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내향적인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향적인 젊은이들에 대해 열등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청년기의 의식의 내향, 외향성과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이 두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심리장애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밖에 임상장면에서 저자들은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심리유형 측정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음에도, 적용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Linton(1982, 1986)이 MBTI와 MMPI를 함께 사용할 때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예견하는데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예컨대, 외향적 직관형의 환자가 MMPI Hs척도에서만 상승된 T점수를 보인다면, Jung이 설명한 것처럼, 그가 치밀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분화시키는 않은 결과, 신체의 작은 감각에도 과보상하고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극단적이거나 뚜렷하지 않은 E, I, S, N, T, F, J, P 선호도 점수는 심리장애의 여러 증상에 대해 성격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한 MBTI와 MMPI의 점수들간의 통계적 분석은 정신장애와 심리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저자들은 청년기의 의식의 내향, 외향성과 MMPI의 여러 척도들, 특히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i척도들을 측정하여,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심리장애간의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시내 A, B, C 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790명을 대상으로 MBTI와 MMPI를 실시하였다. 이중 MBTI와 MMPI의 자료가 모두 충실하게 수집된 476명의 결과가 사용되었다. MBTI, MMPI 설문지중의 하나 이상이 누락된 경우, MBTI, MMPI에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경우(예컨대 MMPI에서 대략 20개 이상), 모두 그렇다, 모두 아니다로 반응한 응답자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받도록 한 것, 설문지 2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성실한 답변이 늘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MBTI의 연속점수와 MMPI의 10개 임상척도간의 상관관을 구했고, 이어서 MBTI의 외향성-내향성 차원과, MMPI의 si척도에서 50점을 기준으로 하여 4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들 집단에 대해 종속변수를 불안척도, 자아강도척도로 하여 일원 변량분석과 post hoc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은 다음과 같다.

- 집단1. 의식의 태도가 내향적이면서(I) 사회적 내향성(si>50)을 보인 집단
- 집단2. 의식의 태도가 외향적이면서(E) 사회적 외향성(si<50)을 보인 집단
- 집단3. 의식의 태도가 내향적이면서(I) 사회적 외향성(si<50)을 보인 집단
- 집단4. 의식의 태도가 외향적이면서(E) 사회적 내향성(si>50)을 보인 집단

평가도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Jung의 성격유형이론을 근거로 Katharine C. Briggs 와 Isabel Briggs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도구이다. MBTI 영어판 검사는 반분 신뢰도가 EI지표는 .63-.99, SN지표는 .75-.90, TF지표는 .67-.86, JP지표는 .80-.88로 검증되었

다. 재검사 신뢰도는 EI지표는 .83, SN지표는 .78, TF지표는 .82였다. 타당도를 보면 E-I 척도의 경우 다른 유사척도(예:16PF의 extroversion)와의 상관계수가 .50-.70이었고, SN척도와 TF척도는 관련척도와의 상관 .58과 .60임을 보고하고 있다.

MBTI의 한국표준화 작업은 1987년에서 1990년에 걸쳐 심혜숙과 김정택(1990)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반분법에 의한 내적 신뢰도 EI지표는 .77, SN지표는 .81, IF지표는 .78, 그리고 JP지표는 .82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각각 검증되었다. 또한 검사-재검사(Test-retest)방법으로 검증해본 결과 EI지표는 .86, SN지표는 .85, TF지표는 .81, 그리고 JP지표는 .88로 더 높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간의 구성타당도는 .90 정도였다.

MMPI

김영환등(1989)이 표준화한 MMPI 표준형을 사용하였다. 10개의 임상척도와 2개의 특수척도를 사용하였다. MMPI 383문항을 사용하였다.

결 과

MBTI의 EI, SN, TF, JP 연속점수와 MMPI 임상척도 14개 MMPI 성격장애 및 특수 척도 13개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기본상관분석에서 외향적 태도가 강해질수록 Lie 척도와 Test attitude 척도에서 부적 상관 (Lie 척도와 EI 간의 상관 -.0461, Test attitude 척도와 EI 간의 상관 -.1624, $p < .01$)을 보였다. 또한 비합리적 경향이 강해질수록 Lie 척도와 Test attitude 척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안척도에서는 정적상관을 자아강도척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였다(Lie 척도와 EI의 상관 -.2269, $p < .01$, Test attitude 척도와 EI의 상관 -.1668, $p < .01$, 불안척도와 EI의 상관 .1725, $p < .01$, 자아강도척도와 EI의 상관 -.1538, $p < .01$).

내향적 태도가 강해질수록 우울증 척도와 강박증 척도가 상승하는 경향(EI 척도와 우울증 척도의 상관 .4474, $p < .01$, 강박증 척도와 EI의 상관 .3064, $p < .01$)을 보였으며, SN 척도와는 .01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척도

표 1. MBTI 연속점수와 MMPI 임상척도간의 상관

		N	EI	SN	TF	JP
Question	(?)	487	.0099	.0712	.0626	.0245
Lie	(L)	487	-.0461	-.0069	-.1082*	-.2269**
Validity	(F)	487	.1751**	.1161*	.1454**	.2589**
Test attitude	(K)	487	-.1624**	-.0257	-.1270*	-.1668**
건강염려증	(Hs)	487	.1426	.0308	.1286*	.1145*
우울증	(D)	487	.4474**	-.0647	.1442**	.0549
히스테리	(Hy)	487	.1160*	.0471	.1801**	.1530**
반사회성	(Pd)	487	.0553	.0628	.1067	.1938**
남성특성-여성특성	(Mf)	487	.1091*	-.0190	.1350*	-.0088
편집증	(Pa)	487	.1596**	.1285*	.0748	.1305*
강박증	(Pt)	487	.3064**	.0072	.2279**	.1666**
정신분열증	(Sc)	487	.2381**	.0662	.2088**	.2501**
경조증	(Ma)	487	.0662	.0125	.0517	.1984**
내향성	(Si)	487	.6258**	-.0134	.1406*	-.0095
불안척도	(A)	487	.3642**	.0202	.2465**	-.2089**
자아강도척도	(ES)	487	-.3376**	-.0192	.1725**	-.1538**

* $p < .05$, ** $p < .01$

가 발견되지 않았다. 감정 기능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강박증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TF척도와 우울증 척도와의 상관 .1442, $p < .01$, 강박증 척도와의 상관 .2279, $p < .01$), 인식적 태도가 강해질수록 반사회적 척도와 경조증 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JP척도와 반사회적 척도와의 상관 .1938, $p < .01$, 경조증 척도와의 상관 .1984, $p < .01$).

이상의 결과에서는 내향적 태도가 강해질수록 불안해지고, 자아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I척도와 불안, 자아강도척도의 상관은 각각, .364와 -.347)

MBTI의 외향성-내향성 차원과, MMPI si척도의 T 점수 50점을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은 다음과 같다.

집단1. 의식의 태도가 내향적이면서(I) 사회적 내향성($si > 50$)을 보인 집단

집단2. 의식의 태도가 외향적이면서(E) 사회적 외향성($si < 50$)을 보인 집단

집단3. 의식의 태도가 내향적이면서(I) 사회적 외향성($si < 50$)을 보인 집단

집단4. 의식의 태도가 외향적이면서(E) 사회적 내향성($si < 50$)을 보인 집단

이상 4집단에 대한 불안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F=31.00$ 이며 $p < .001$ 이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 결과는 집단1과 집단4가 높은 불안점수의 동질집단으로, 집단 2와 집단 3은 낮은 불안 점수의 동질집단으로

표 2. 불안 척도에 대한 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비
집단간	2777.746	3	925.915	31.220***
집단내	13998.649	472	29.658	
전 체	16776.395	475		

*** $p < .001$

표 3. 불안 척도에 대한 다중 비교

		N	subset for alpha= .05	
집단	집단 2($E \& si < 50$)	150	9.86	
	집단 3($I \& si < 50$)	102	10.11	
	집단 1($I \& si > 50$)	196		14.62
	집단 4($E \& si > 50$)	28		15.79
sig			.788	.207

표 4. 자아 강도 척도에 대한 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비
집단간	1611.527	3	537.176	21.653***
집단내	11709.589	472	24.808	
전 체	13321.116	475		

*** $P < .001$

표 5. 자아 강도 척도에 대한 다중 비교

		N	subset for alpha= .05	
집단	집단 2(E&si<50)	196	22.58	
	집단 3(I&si<50)	28	23.61	
	집단 1(I&si>50)	102		25.54
	집단 4(E&si>50)	150		26.75
sig			.224	.150

로 묶였다.

이상 4집단에 대한 자아강도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F=21.653$ 이며 $p<.001$ 이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으며, Duncan의 다중 비교 결과는 집단1과 집단4가 낮은 자아강도점수의 동질 집단으로, 집단 2와 집단 3은 높은 자아강도점수의 동질집단으로 묶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의 여러 현상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서울 시내 3개 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790명을 대상으로 MMPI와 MBTI를 실시한 뒤 이중 MBTI와 MMPI의 자료가 충실히 수집된 476명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MBTI연속점수와 MMPI척도간의 상관관계에서 외향적 태도가 강할수록 Lie(L)척도와 Test attitude(K)척도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내향적 태도의 집단이 외향적 태도의 집단보다 불안척도(A)와 자아강도척도(E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정적, 부적 상관을 보였다(EI와 Lie척도 $-.0461$, K척도 $-.1624$, $p<.01$, A척도 $.3624$, $p<.01$, ES척도 $-.3376$, $p<.01$).

내향적 태도의 집단이 외향적 집단보다 불안경향은 높고 자아강도는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러한 현상은 외향적 집단의 방어적 태도에서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외향형이 자신의 심리적 반응의 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관련이 있는가? 아니

면 우리 문화가 내향적인 태도에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Whitmont, 1978) 아니면 청년기는 사회적 성취의 시기이므로 내향형이 당혹감을 경험하기 때문인가?(Smith, 1990 ;Whitmont,1978)

외향적 태도가 강할수록 L, K척도가 상승하는 경향(EI와 L척도 $-.0461$, K척도 $-.1624$, $p<.01$)을 보인 것이 이 집단의 방어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외향형 집단은 내면심리보다 세계에 관심이 있으므로(Jung,1974;이부영,1978: Franz,1975) 이들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Quenk(1985)는 외향형은 흔히 임상적으로 우울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고, 이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파괴적인 행동에 이르는데, 외향자의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만 친구, 친지들은 외향자의 고통의 정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내향형은 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울하다고 흔히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행복하지 않은 것과 우울을 혼동한다고 하였다. 우리 문화가 내향형에 대해 갖는 편견과 청년기 사회적 성취의 문제와 태도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판단적 태도보다 인식적 태도를 보일수록 외, 내향적 태도에서 보이는 결과를 다시 재현(IP와 L척도 $-.2269$, $p<.01$, K척도 $-.1668$, $p<.01$, 불안척도 $.1725$, $p<.01$, 자아강도척도 $-.1538$, $p<.01$)하고 있다. 인식형의 사람들이 판단형보다 높은 불안경향을 보이는 것이 유형특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판단형이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므로 학업에서의 성공이 용이해서 적응적인 것인지(Macdaid &

McCaulley, 1986; McCaulley & Natter, 1980), 아니면 인식형은 내외세계에 복잡하게 주의하며 따라서 복잡한 현대사회체계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지(McCaulley & Natter, 1980)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고형보다 감정형이 여러 척도에서 보다 갈등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TF와 불안척도의 상관 .2465, $p < .01$, 자아강도 -.2089, $p < .01$). Whitmont (1978)는 청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장면에서 사고유형이 감정유형보다 학업성취에서 용이함을 느끼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특수한 위치에 있으며, 현대사회가 감정보다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Carlyn (1977)도 감정형보다 사고형의 청년이 적응에 유리하다고 했다. von Franz(1975)는 감정형이 사고형으로의 압력을 받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고 했고, 이런 경우 나타나는 혼란형(disturb type)과 정신병리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외향적이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유형을 선호하고 따라서 외향형이 적응에 유리하다(Jung, 1974; Carlyn, 1977)는 견해와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Rytting 등, 1992)

MBTI의 EI척도와 MMPI의 si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내향-외향성 및 사회적 성취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현대산업사회는 조직사회(Presthus, 1962)이고 청년기는 외적성취가 가장 중요한 목표(Jung, 1974; Whitmont, 1978)로 주어진다. Jung에 의하면 내향적 태도가 개성화에는 바람직하지만 청년기에는 사회적 성취를 하여야 하므로 외향적 태도가 적응에 유리하다고 했고, Whitmont(1978)는 현대산업사회 자체가 외향성, 사고, 감각기능을 요구한다고 했고 Etzion (1964)도 현대사회가 합리성, 효율성에 높은 가치를 준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는 내향성을 열등하게 보는 사회이며(Whitmont, 1978), 김중술(1988)은 우리 문화가 내향성을 열등하게 판단하므로 Si척도를 내향성 척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그래서 Whitmont는 내향자들이 자신의 내향적 태도를 비웃는 교육, 사회체계와도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내향형의 젊은이는, 사회적 성취에 외향적 측

면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더하여, 외향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중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 문화적 압력과 청년기에 주어지는 과업이 내향형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취약한 내향자들은 유사-외향형(pseudo-extrovert)으로 기능하는 혼란형(disturb type)이 되어 정체성을 잃고 심각한 심리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필자들의 임상, 상담 경험으로는 내향적 환자, 내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는 거의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의 불편함,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내향성에 대한 열등감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면 MBTI에서 내향적, MMPI에서 사회적 외향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집단 3)의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MBTI에서 내향적으로 나왔으니 내향자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MMPI에서 사회적 외향자로 나왔으니 외향자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들은 외향적으로 되고 싶은 내향자들인가? 아니면 MMPI의 si척도는 내향자인 이들이 잘 기능한다는 지표인가? 또한 E이면서 si>50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집단 4)은 유사-외향자인가? E는 외향자의 내적인 성숙을 반영하는 지표인가?

이처럼 타고난 내향자(intro), 외향자(extro)와 유사 내향자(pseudo intro), 유사 외향자(pseudo extro)를 구별하고 이들의 정신병리와 정신건강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때 MBTI의 외, 내향성과 MMPI si척도의 외, 내향성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들은 유사 내향자, 또는 유사 외향자일 가능성이 있다.

MBTI에서 I이면서 MMPI에서 Si<50인 사람들과(집단 3), MBTI에서 E이면서 MMPI에서 Si>50인 사람들(집단 4)에게도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pseudo E, I인가? stress 상황에서는 열등한 영역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I(내향성), S(감각)를 보다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다(Ware, Rytting, & Jenkins, 1994). 반면 불안이 높은 조건에서는 외향자는 보다 친교적이 되고, 내향자는 덜 친교적인 된다는 연구(Krapu, 1981)도 있다. Ware 등

(1994)의 연구에 의한다면 MBTI에서 내향적이면서 MMPI에서 사회적 외향성을 보이는 집단은 일단은 외향적 집단이 유사 내향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집단 3) 불안점수는 낮고, 자아강도점수는 높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내향적인 측면도 충분히 분화된 성숙한 외향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숙한 외향자라면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것이므로 아무리 내향적인 측면이 충분히 분화되었다고 하여도, MBTI에서 내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Brownsword(1988)에 의하면 외향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다.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 고갈된다.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확인되고 인정되기를 바란다. 일에 대해 타인과 의논할 때,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해결한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연결되려는 욕구가 만족된 외향자는 보다 혼자 쉬려는 시간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 혼자 있는 것은 지루하고 긴장을 야기한다.

따라서 MBTI에서 E이면서 MMPI에서 si<50인 사람들은(집단 4),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내향자가 외향자가 되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경우이거나, 둘째, 외향자가 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장면에서 후퇴한 부적응한 상황이거나, 셋째 외향자가 적응에 성공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집단 4는 적어도 적응에 성공한 외향자가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아니다. 이들은 높은 불안과 낮은 자아강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4는 내향자가 외향자가 되려하는 부적응적인 경우이거나, 적응에 실패한 외향자가 후퇴한 경우로 보인다. 내향자가 외향자가 되려는 경우라면, 타고난 내향성이 갖는 장점을 받아들이고 identity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적응에 실패한 외향자라면 적응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외향적이면서 si<50인 사람들은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청년기의 내향자들 모두가 부적응을 경험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외향적이면서 사회에서 후퇴한 집단(집단 4)은 누구보다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집단 1과 집단 4가 동질 집단으로 묶여져 있으나, 외향적 집단은 보다 방어적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집단 4가 보다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청년기는 외적 성취의 시기임에도, 사회에서 후퇴하여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성취는 어렵고, 그는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외향적, 즉 관심은 사회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내향성, 즉 사회로부터 후퇴하여 있는 경우에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이다.

집단 1(I이면서, si>50)은 집단 4와 동질집단으로 묶여있다. 그러나, 내향자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압력을 고려하면 이들은 장년기에는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가장 해석이 쉬운 것은 집단 2(E이면서, si<50)일 것이다. 이들은 명백한 외향형으로서 자신의 외향적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장년기에 이르러 집단 2와 집단 4가 어떤 양상을 보일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내향적, 즉 자신의 욕구, 가치, 정서등을 사회기준에 맞추어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창조적이고 적응적인 사람일 것이다. 청년기는 사회적 성취의 시기이므로 외향적 태도가 적응에 유리하고 내향적 태도는 불리하다고 하지만 태도 전체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결과가 보여준다. 즉 내향적일수록 불안척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집단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p < 0.0001$) 불안 점수를 보이며, 집단 4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p < 0.0001$) 불안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향자는 외부세계에서 본능적으로 후퇴하며, object fear가 있다는 Whitmont(1978)의 견해에 따르면, 내향적이면서 si<50으로 사회장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가능성은 이들은 외향적 측면도 잘 분화시킨 내향자들이라는 것이다.

Jung 자신은 인생의 후반기 40이후에는 내향자가 보다 완성적이고 자기 실현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집단 1(내향적이고 사회내향성인 집단)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집단 1은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높고($p < 0.0001$), 자아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낮았기 때문($p < 0.0001$)이다. 앞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집단 1의 심리적 어려움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가 외향적이므로 외향형이 유리한 측면과, 청년기에 사회적 성취를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집단 1은 외향형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MMPI의 si척도와 MBTI의 EI척도는 같은 차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MMPI의 si척도와 MBTI의 EI척도는 만들어진 이론적 배경과 척도 구성 및 제작과정이 다르다. MBTI는 태도의 방향을 측정한다면, MMPI의 si척도는 사회장면에서의 후퇴와 참여를 측정하며, 아마도 한 개인의 적응 정도를 반영하는 좋은 지표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내향형중에서도 잘 적응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는 좋은 지표의 역할을 MMPI의 si척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향형중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을 구별해 내는데에도 MMPI의 si척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참고문헌

- 김명식 (1992). Type A/B와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정택, 심혜숙 (1990). MBTI 16가지 성격유형.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1990). MBTI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중술 (198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부영 (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Bachant, J. L. (1972). Processes of transform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ego during emotion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G.Ju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19-B.
- Billington, E. B. (1981). Relationship quality and jungian psychological typ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07-B.
- Brownsword, A. W. (1988). *Psychological Type: An Introducti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ess, Inc. San Anselmo, California 94960.
- Carlyn, M. (1977). An assessment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5), 461-473.
- Delehanty, R. B. (1977). The role of Jung's compensatory function in dreams of extraverts and introver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2-B.
- Etzion, A. (19684). *Moder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Franz, M-L von, (1975). 'The Inferior Function', in M.-L. von Franz and J.Hillman (Eds), *Lectures in Jung's Typology*, Zurich, Spring Publications.
- Goodpaster, J. R. (1984). Theravada buddhism and Jungian Psychology: A comparative stud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056-B.
- Hillman, J. (1975). 'The Feeling Function', in M.-L. von Franz and J.Hillman(Eds), *Lectures in Jung's Typology*, Zurich, Spring Publications.
- Hostie, R. S. J. (1975). 'Religion and the Psychology of Jung', Translated by G. R. Lamb. New York: Sheed & Ward.
- Jacobi, J. (1973). *The Psychology of C. G. Jung*. Yale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74). *Psychological Types*. (Collected Works, Vol. 6).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pu, T. K.(1981). Extraversion, introversion and

- anxiety in relation to affiliation in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551-A.
- Linton, P. H., Kuechenmeister, C. A., Kuenchenmeister, S. B., & White, H. (1982). Personality Type and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c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7(4), 463-476.
- Linton, P. H., Kuechenmeister, C. A., & Kuenchenmeister, S. B. (1986). Personality Type and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c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11(1), 37-49.
- Macdaid, G. P., McCaulley, M. H., & Kainz, R. I. (1986). *Myers-Briggs TYPE Indicator Atlas of Type Tables*. Gainesville, Florida: CAPT.
- Martin, P. W. (1958). *Experiment in Dept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cCaulley, M. H., & Natter, F. L. (1980). *Psychological type differences in education*. Gainesville, Florida: CAPT.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6).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PP.
- Presthus, R. (1962). *The organizational society*. New York: Knopf.
- Quenk, A. T. (1985).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therapy*. Gainesville, Florida: CAPT.
- Rytting, M., Ware, R., & Hopkins, P. (1992). Types and the ideal Mate: Romantic Attraction or Type Bia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24, 3-11.
- Smith, A. (1990). Jung's archetype of the self as it appears in Thomas Merton's Journey toward self-awarenes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43-B.
- Ware, R., Rytting, M., & Jenkins, D. (1994). The effect of Stress on MBTI score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30, 39-44.
- Whitmont, E. C. (1978). *The Symbolic Que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ohay, D. V. (1982). The relation of Jungian styles of consciousness to ego functioning: An exploratory stud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050-B.
- 원고접수일 1999. 2. 22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10
게재결정일 1999. 9. 21 ■

A Study about the Relation of MBTI attitude scale and MMPI si scale

Jae-Kap Lee

Seoul Counselling Center

Yoon-Jung Choi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 Nam Saint Mary's Hospital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Jung's theory of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ypes of MBTI and scales of MMPI, especiall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BTI E-I scale and on MMPI si scale in 476 university students. We classified 4 groups by the MBTI extrovert-introvert scale and MMPI si scales. Those 4 groups are: Group 1(introverted attitude(I) and socially introversion(si>50)), Group 2(extroverted attitude(E) and socially extroversion(si<50)), Group 3(introverted attitude(I) and socially extroversion(si<50)), Group 4(extroverted attitude(E) and socially introverted(si>50))

Simpl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BTI continuous scales and MMPI scales and one way ANOVA with the anxiety scale and ego strength scale as dependent measures were conducted on the 4 grou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BTI E-I scale and MMPI anxiety scal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one way ANOVA with the anxiety scale as dependent variable reject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classified Group 1 and Group 4 as high anxiety homogeneous group. One way ANOVA with the ego-strength scale as dependent variable rejected null hypothesis and the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classified Group 1 and Group 4 as low ego-strength score homogeneous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not all introverts experience psychological difficulties. Even the introverts, if socially active, appear to show good psychological functioning. Second, not all the extroverts adapt well psychologically. The extroverts with poor social participation are likely to show poor psychological functioning.